

LG전자, 고효율 태양전지 모듈 공개

독일 태양에너지 전시회 참가 ... 에너지 효율 18% 향상에 셀 결합형

LG전자가 해외시장을 공략해 고효율 태양전지 모듈을 선보인다.

LG전자는 6월 9-11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세계최대 태양에너지 박람회 <인터솔라 2010>에 참가해 144m² 규모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현재 양산하고 있는 단결정 및 다결정 태양전지 모듈 3개와 하반기에 출시되는 고효율 모듈 제품 1개 등을 공개했다.

에너지 효율을 18.6% 향상시킨 태양광 셀을 결합해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적합하게 만든 <파워 풀 모듈>과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이온반응식각 기술을 적용한 <블랙 오닉스 모듈> 등 차세대 주력제품도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.

LG전자 솔라사업팀장 조관식 상무는 “가까운 미래에 양산 가능한 태양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다”며 “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일부 연구 결과물들은 2011년부터 기술적 차별화를 내세워 사업을 전개할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6/09>